



정보화사회에 있어서의 여성의 역할

權 英 子 (여성개발연구원 조사연구실장)

I. 머리말

미래학자들이 전망하고 있는 2000년대의 우리 사회의 특징중 몇 가지를 보면 첫째, 고도산업사회 및 정보화사회, 둘째 평준화와 다양화가 병행하는 사회, 세째는 국제화된 사회의 특징을 지닐 것이라 한다. 그중 첫째의 특성인 고도산업사회 및 정보화 사회의 도래는 여성에게 두가지 측면에서 긴장을 요구한다. 하나는 변화를 수용하는 자세에서의 문제다. 원시사회에서 농경사회로, 이후 산업사회로 생산구조와 문화패턴이 변화해 온 과정에서 여성은 큰 변화의 물결이 올 때마다 그 물결을 정면으로 받아 수용하기보다는 그때마다 주변세력으로 밀려남으로 해서 발전에서 낙후되는 면을 보여왔다. 새로운 큰 변화의 물결이라 보여지는 이 정보화 사회의 도래를 놓고 여성이 이를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 여성은 또한번 발전에서 소외되느냐 발전에 통합되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게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 변화를 촉진하는 매체로서의 여성의 역할이 여성발전에 얼마나 기여하느냐의 문제다.

이러한 문제를 풀여보기 위해서 이 글에서는 먼저 정보화 사회의 실현가능성과 그 특성을 살펴보고 그것이 여성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후에 이 거대한 변화를 여성들이 어떻게 받아서 수용할 것인가를 논해보고자 한다.

II. 정보화 사회의 특성

먼저 정보화 사회란 말을 규정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즉 “정보의 수집, 처리, 전달, 보관 등이 시간

과 거리를 동시에 극복하면서 대량으로 이루어져 사회를 이끌어 가는 힘이 이 정보기술에서 주로 발휘되는 사회”라고 하겠다.

이는 육체에서 나오는 힘이나 전기와 같은 에너지에서 나오는 힘이 존중되고 자산이 되던 농경사회나 공업화 사회와는 사뭇 다른 특성을 지니는 사회다.

정보화 사회의 도래를 전망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후기 산업사회에 와서 라디오, TV 등 대량의 정보를 동시에 많은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매체의 발명에 이어 컴퓨터와 같이 정보를 처리 보관하는 기계의 발명, 이와 병행하여 발전하고 있는 통신수단의 괄목할 만한 변혁이 정보화 사회의 빠른 도래를 촉진하는 요소들이라고 지적한다.

통신수단의 획기적인 발전이나 컴퓨터와 같은 고도의 기능을 지닌 기계들의 개발은 사회가 복잡하게 변하고 생산기술이 나날이 개발됨에 따라 생산되는 막대한 양의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활용할 필요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인류 사회는 그 사회가 지니고 있는 정보의 양과 그 중요도에 따라 각각 단계별 정보체계와 수단을 소유했다고 할 수 있다. 원시사회에서의 몸짓, 음성, 그밖의 사물에 의한 신호 등이 정보수집과 전달의 체계가 되어왔듯이 기술의 진보 단계에 따라, 또 정보전달의 필요성에 따라 인류는 문자를 발명하고 인쇄술을 발명하는 등 그 요구에 응하였던 것이다. 전기통신의 발명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인류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바를 설명할 수 있다.

산업사회의 도래는 지속적인 기술의 개발을 요구하였고, 이에 수반하여 생산되는 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요구

함에 따라 정보통신수단 분야에 놀라운 발전을 가져왔다. 누구나 원할 때 자유롭게 정보를 받을 수 있을 만큼 그 수단이 발전하기에 이르자 이제는 산업사회의 생산의 주수단이 되는 전기, 에너지 이상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동력의 발명이 농경사회를 산업사회로 서서히 바꾸어 놓았듯이 정보 처리 및 유통 수단의 발달은 산업사회를 다시 정보화 사회라는 특성이 크게 다른 사회로 바꾸어 놓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대량정보의 고속처리와 검색기능을 가진 컴퓨터와 정보를 멀리까지 운반 배포하는 고도의 통신수단이 결합되어 만들어 내게 될 정보화 사회는 어떤 특성을 띠는 것인가.

이에 대한 명확한 전망을 말하기는 쉽지 않다. 지금은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되는 초기단계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기는 해도 여러 학자들의 조금씩 다른 견해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는 공동의 전망에 의하면 우선 정보화 사회에서는 산업사회에서 생산수단으로 중요시되던 물질과 에너지가 정보와 지식으로 대체되는 다시 말하면 정보와 지식이 모든 사회생활의 영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핵심적 역할을 감당하는 주체가 바뀌게 되면 이에 따라서 산업구조가 바뀐다. 일의 성패가 땀흘리는 노동중심보다는 각종의 정보에 좌우되기 때문에 정보의 생산처리가 주요 산업분야로 등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직업의 분포도 고급 전문 기술직이 각광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회의 구조도 바뀐다. 사회적 가치나 새로운 행동양식을 요구함으로써 개인도 이에 적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변화를 경험한다. 가치관, 태도, 행동양식이나 의식의 변화 등이 그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80년대에 들어와 사회의 선행조건인 통신기술의 혁신이 이루어졌고 컴퓨터의 보급이 일반화 되기 시작했다. 이는 정보이용의 대중화 가능성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는 통신망의 고도화, 정보이용의 대중화를 꾀하면서 다가올 정보화 사회에 대한 적응능력을 배양하는 시책을 펴나가고 있어 적어도 2000년의 한국사회가 정보화 사회의 특징을 띠는 것이라는 미래학자들의 전망을 타당케 한다.

Ⅲ. 정보화 사회와 여성

앞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화 사회는 사

회구조와 산업구조는 물론 개인의 의식구조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여성에게 미칠 변화는 매우 크고 중요할 것이다.

예측되는 많은 변화 가운데서 여성의 역할변화를 가중시킬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여성의 역할은 그외 생물학적인 특성인 출산역할에 의하여 계속 규범지어져 왔다. 원시사회에서도 수렵에 주력하는 남성과는 달리 여성은 자녀양육과의 병행이 가능토록 식물의 채집이라는 생산활동에 주력했을 것이라는 인류학자들의 전망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은 오래전부터 그의 일차적 책임을 자녀교육에 두고 살아왔다고 할 수 있다. 농경사회에 와서도 이러한 남녀분업의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리라 본다. 남성들이 수렵과 영토확장을 위한 전사(戰士)로서의 역할에 몰두하는 동안 여성은 씨뿌리기와 길쌈 등 상대적으로 정적인 생산노동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재생산 역할이 크게 기대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문명이 발달하고 생산구조와 기술이 보다 진보된 사회에서도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그 역할영역이 매우 한정되어 있었다. 여성들은 생산 및 재생산이라는 매우 중요한 생산활동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를 대표하는 모든 공적인 영역에서의 활동은 거의 제한을 받았던 것이다.

성별에 의한 남녀분업 즉 남자는 바깥일을 대표하여 수행하고 여자는 안일 곧 집안일을 수행한다는 이 역할분담은 우리나라의 경우 매우 엄격하게 지켜졌다.

조선조의 경우를 보면 여성에게는 바깥일을 대표하여 수행할 수 있는 지적 기반을 제공해주지 않았으며, 또한 여자는 어떤 경우에도 벼슬길에 나아갈 수 없도록 남녀유별을 고수하였다. 이때의 여성의 직업적 지위는 무에 가까운 것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19세기 말 개화의 물결이 이 나라에 밀려와 여성에게 교육의 기회가 열리기까지 지속되었다.

근대화 초기 여성들은 오랜 침묵에서 깨어나기 시작하였다. 여성이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비하된 존재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교육의 부재에서 찾은 선각자들은 여성운동으로부터 시작하면서 여성의 지위향상을 도모하였던 것이다. 한편 생산직 혹은 교사, 간호원과 같은 제한된 직업에 여성이 차츰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개화기에 눈을 뜨기 시작한 여성의 사회참여운동은 근대화 과정을 겪으면서 점차 그 열기를 더하여 해방과 함께 얻은 헌법은 남녀의 평등정신을 기반으로 여성의

교육 기회의 평등, 나아가 사회참여의 평등을 규정하기에 이른다.

'6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여성역할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즉 가정적 역할의 상대적 축소와 사회적 역할의 상대적 확대이다.

이는 산업화정책에 따라 여성의 인력이 집중 활용된 데 큰 영향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구억제정책에 의한 소자녀가족화가 여성의 가정적 일을 크게 축소시키는데 기인한다. 또한 과거 30여년간 지속된 경제 사회의 발전은 학력수준을 높여 여성으로 하여금 자아에 눈뜨게 하였고, 사회발전에 여성의 발전을 통합시키려는 노력을 유발시켰다. 그중 하나가 여성의 직업적 지위를 높이려는 꾸준한 노력이었다.

이처럼 여성은 사회가 큰 변화의 물결을 탈 때마다 그들의 역할영역을 사회로 확대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하였고, 동시에 사회발전의 수혜자인 동시에 사회발전의 수행자가 되려는 의지를 표명해 왔으나 사회는 이러한 여성의 요구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그것은 여성의 일차적 책임이 자녀출산과 양육 및 그에 따르는 가정적 역할에 있다는 남성 성별 역할분리관을 고수함으로써 여성을 사회적 역할로부터 소외시키는 결과를 빚은 것이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산업사회에 와서조차도 그와 같은 시각은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 고학력여성 전문인력이 매년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들의 능력이 한몫의 전문인으로서 결코 남자에 뒤지지 않는다는 것이 도처에서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취업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은 남녀역할 편견의 작용이 크다 하겠다.

앞로 전개될 정보화 사회는 여성을 어떻게 수용할까. 정보화 사회도 모든 노동을 공적 영역인 사회노동과 사적 영역인 가사노동으로 여전히 이분하여 수행케 할 것인가. 또한 공적인 사회노동은 모두 출근이라는 형태를 통한 집밖노동에 국한될 것인가. 그리하여 성차별적 여성인력 활용체제를 여전히 고수할 것인가 등을 생각해 본다.

우선 고무적인 사실은 서구선진국의 예에서 볼 때 정보화사회는 여성의 직업 참여를 유리하게 하는 산업구조의 개편을 가져온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온다는 점이다.

그러한 주장에 의하면 먼저 지적, 기술적 능력이 중요시되는 정보관련 부문에서는 농경사회나 산업사회에서

중시되던 노동의 수행에 있어 육체의 힘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진다는 점이다. 여성은 생산구조가 육체적인 힘을 요구하는 체제속에서 육체적 완력의 상대적 열등이 곧 직업적 능력의 열등이라는 편견아래 노동력으로서의 열등한 존재라는 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에 정보화 사회의 이러한 특징은 여성의 역할영역확대에 매우 고무적임을 알 수 있다.

두번째는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비전통적인 직업양식이 개발되리라고 보는 견해다. "성취나 경쟁 또는 효율성 추구에 주력하는 산업사회와는 달리 정보화 사회에서는 자아실현, 자기성장, 창의성과 같은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적활동이 주목을 받아 문화업종의 영역이 크게 확대되리라는 전망 역시 여성에게는 고무적이다. 여성은 긴 역사동안 매우 정의적인 존재로 사회화되어 왔으므로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적응력은 남성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업구조의 이와 같은 변화 가능성은 지금까지 여성을 일정시간 동안 집밖으로 끌어내어 노동에 참여케 함으로써 발생하는 취업에 있어서의 여성의 부담을 한결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아니라 정보처리기기의 발달은 재가(在家)근무제도 도입의 가능성을 점치게 하는데 이 역시 여성에게는 고무적이다.

직업적 측면에서 뿐 아니라 여성의 주된 역할장소인 가정내의 변화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먼저 정보화 사회에서 이루어질 자동화의 확대는 여성의 여가 시간을 증대해 줄 것이다. 의술의 발달에 의한 인구의 고령화와 출산률 감소에 따른 자녀양육 시간의 극소화는 여성의 여가 증대에 기여할 것이며, 가사도구의 자동화와 통신을 이용한 가사노동의 시간절감은 여성의 문화적 활동이나 직업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제공케 해줄 것인데 여성활동의 상당부분이 통신매체의 활용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여성은 지금까지 집밖으로 일정시간 나가있으므로 해서 오늘날 가사노동과의 이중부담에서 훨씬 해방되어 보다 많은 능력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IV. 정보화 사회속에서의 여성발전가능성

위에서 살펴본대로 정보화 사회의 특성은 여성을 보다 발전적인 존재로 발달음시킬 적지않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낙관만 할 수 없는 것은 긴 사회발전과정에서 여성은 큰 변화의 물결이 있을 때마다 중심부에 남아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발전으로까지 연결시키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문화인류학자들의 많은 지적에 의하면 인류역사의 초기에 존재했으리라 보여지는 모권사회에서의 양성간의 관계는 매우 평등하고 우애적이었을 것이며, 역할분담도 여성의 생물학적인 특성이 고려된 분업관계로서 생존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공동노력의 효과적인 조치일 뿐 성차별적인 것은 아니었으리라고 본다.

이와 같은 평등적인 분업관계가 성차별적인 종속관계로 바뀐 것은 변화의 큰 물결과 깊은 관계가 있다.

인류가 겪은 첫 변화의 물결은 생업이 비교적 안정적인 구조를 가진 목축과 농경으로 바뀐 농경사회의 도래라 하겠다. 이는 금속문화의 도입에 의한 생산력 증대에 따라 사회가 발전한 단계로서 이때의 금속의 소유는 곧 권력과 부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때 남성은 어로와 수렵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는 핵으로서의 금속을 선점한데 반하여 여성은 채집과 씨뿌림의 주인공으로서 금속의 소유에 소극적이었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인류의 존속과 번영 및 매일의 식량증식에 대한 바래과 믿음의 표상으로서 숭앙의 대상이 되어 왔었으므로 해서 큰 변화의 소용돌이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역할 수행이 여성에게 더 타당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결과는 발전상 남녀간에 엄청난 차이를 드러내는 것으로 끝났다. 여성들이 자신의 생명 생산이라는 신비한 능력에 도워되어 잇기를 원했던 것과는 달리 금속문화의 도입이 종래 주술에 잠겨 불가능으로 보였던 부분을 금속으로 쓰여진 기술이 해결하는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여성은 더이상 과거에 누렸던 숭앙 대상의 자리에 있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처럼 여성이 변화의 수용에 도전적이지 못하였던 결과는 가부장제의 강화에 의한 여성에속을 가져와 남녀가 함께 발전하고 그 발전의 열매를 누리는 기회를 일단 상실하였다고 보겠다.

따라서 정보화 사회가 여성을 사회발전에 통합시키는 데 역 기능을 발휘하지 않도록 여성의 적극적인 수용자세가 요구된다.

V. 제 언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화 사회의 도래는 그 자체가 여성의 발전을 저해할 요인보다는 발전에 여성을 통합시킬 요인이 더 크게 부각된다고 볼 때 여성은 다시금 과거의 여성들처럼 변화에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인 대처를 함으로써 지금까지 여성의 발전을 저해해온 기제로서의 가부장제의 지속내지 강화를 용납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여성들은 먼저 새로운 큰 변화의 물결이 우리 앞에 닥치고 있으며 그 물결은 여성의 역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그 변화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이해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보화 사회의 특성중 하나가 지식, 기술집약의 사회이고 전문성과 기술이 요구되는 사회라고 볼 때 이 점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해야 될 몇 가지 사실들이 있다. 여성들은 전통사회의 사회화 과정에 의하여 전문 혹은 기술에 대하여 일종의 두려움과 같은 기피증을 지니고 있다. 기계나 기술은 여성과 멀다는 생각이 그것이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의 처리유통 등과 관련된 기기와의 접근뿐 아니라 자동화의 기능을 적극 수용할 기술을 소유하지 않고는 낙오할 수밖에 없다. 첨단적인 기술을 모두 남성에게 양보하는 지금의 전공 선택 풍토나 기계다루기를 겁내는 지금의 자세에서는 하루 빨리 탈피해야 할 것이다.

세번째는 직업사회에서의 변화를 예측하면서 새로운 직종, 첨단적인 직종에 대한 여성들의 적극적인 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여성들은 전통적인 직종이나 단순 직종에서 저임금등의 성차별적 대우를 감내하며 살아왔다. 큰 변화의 물결이 일어날 때 첨단분야에 도전하여 성공하는 것은 남녀의 불평등적 고용관행을 한몫에 깨는 좋은 지름길이 된다.

이런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보화 사회에서의 여성 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 교육이 다양하게 일어나야 될 것이다. 가치관 태도에 관한 의식변화 교육뿐 아니라 기계와의 접근을 수월하게 해주는 실습 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리라 본다.